기획예산처 보도설명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배포 2026. 11. 1.(일)

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이 재정안정화 장치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안정적 운용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.

<보도내용>

□ 2026.11.1. 연합뉴스는 「예정처 “2029년부터 추과세수 없다”…미래대응기금 재원에 우려 제기」, 한국일보는 「예정처 “2029년부터 추가세수 없다”… 미래대응기금 지속가능성 우려」 등 기사에서,

○ “이재명 정부가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의 핵심 재원인 추가세수가 내후년부터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국회 예산정책처(예정처) 전망이 나왔다”

○ 예정처는 1일 '2027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' 보고서에서 "2029년 이후에는 (내국세 세입) 추세치가 내국세 전망을 상회해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추가세수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"고 보도하였습니다.

<기획예산처 입장>

□ **미래대응기금**은 우리 경제의 **높은 세수변동성을 흡수하는 재정안정화 장치**로서, 일시적으로 늘어난 세수를 적립하여 **향후 세수둔화에 대응**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**매년 초과세수가 발생·적립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**.

□ **반도체 경기 등에 따라 세수가 증감**할 수 있으므로 **현시점**에서 미래대응기금의 적립금 규모를 **추산하는데 한계**가 있습니다.

□ **미래대응기금**이 **재정안정화 장치**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**안정적 운용**을 위해 **적극 노력**해 나갈 계획입니다.

담당 부서	미래전략기획실 미래대응기금 추진단	책임자	단 장	박성훈 (044-214-2360)
		담당자	서기관	박성준 (bbakko0@korea.kr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대체불가 대한민국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